



일본인 주거지역 일제의 주요 거점건물인 목포경찰서 앞 일본인 주택지 전경. 일본 본토의 주택 양식을 그대로 적용했다.



한국인 주거지역 오일조밀하게 초가집이 난립한 한국인 거주지역. 이들 지역에 대한 도로 조성사업은 1920년대 본격화되고 이후 밀려드는 일본인들로 인해 한국인은 목포 외곽지역으로 쫓겨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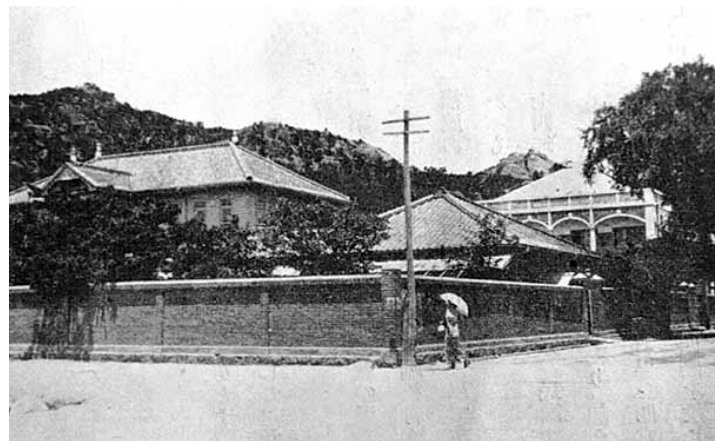
한국인 주거지 무리한 개발... 결국 일본인들이 땅 매점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 근대화 탐사



(전남편)

9. 주거지 마저 빼앗긴 목포 주민들



1919년 들어선 목포부립병원. 상수·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난개발된 한국인 거주지역으로 인해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일본인들은 서둘러 병원을 건립했다.



일본인 거주지역의 도로는 격자형으로 넓게 조성됐다.

1919년 일본 본토에서 도시계획법과 시가지건축물법에 제정되면서 식민지 조선의 각 도시에서도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졌다. 1930년 목포부가 출간한 목포부사에는 이러한 정황이 잘 서술돼 있다.

“항구도시 목포는 1897년 개항 이래 오로지 발달하는 추세에 있으며 점차 대목포를 예상, 지금 미리 적당한 계획을 입안·결정해야 한다. 상업, 공업, 주택 등의 각 지역을 지정해 그 토지의 이용을 적절하게 하고, 주민생활의 안정과 능률의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교통시설을 완비함과 동시에 비위생지역을 개조하는 것은 물론 건축물을 통일하고, 상하수도의 시설계획을 하나로 해 보급하는 것도 시급하다. 그리고 여가시설을 완비하고, 사회시설을 설치하며 관아 및 공관의 위치를 선정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구히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며, 복리의 증진을 위해 목포 100년의 대계를 수립하는 자료로, 부는 1916년부터 1926년까지 11개년 동안 목포부 및 인접 면에 도시계획상 필요한 통계를 취합하기도 했다. 근자에 도시계획법규의 발표를 기대하고 더욱 근본적 계획안이 작성됐으며 문화도시의 건설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구상을 1920년대에 바로 목포에서 실현하기에는 인력 및 재정적 문제가 존재했으며, 당시 용어로 이를 ‘시구개정’이라고 불렀다.

“시구개정”이란 용어는 메이지유신 이후 일제가 만들어낸 것으로 유럽의 도시를 본받아 수도 도교를 개조해 근대국가의 격에 맞는 도시로 재탄생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 1888년 일본은 ‘도교시구개정조례’를 제정하면서 법적기반을 마련해 시구개정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토지이용규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시가지개발에 대한 계획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운용되는 공간계획이 아니라 단순히 도시의 도로, 교량, 하천을 정비해 각 블록별로 건축물을 정비·정돈하는 정도였다.

한일강제병합 이후 식민지 조선의 수도 경성, 부산 등을 중심으로 시구개정사업이 시작됐다. 일본 본토와 달리 법정 도시계획은 아니었지만, 조선 각 지역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삶의 터전에 유사한 사업들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목포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상수도과 도로는 개항 이후 각 국거류지회 사업으로 구축했고, 목포부가 이를 이어받아 시설의 개선 및 확장에 나섰다. 그러나 도시의 위생문제와 시가지 주변의 난개발은 인구의 급속한 유입과 더불어 더욱 심각해졌다. 결국 시구개정과 하수도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목포부 자체 예산만으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토목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에 국고 보조를, 전라남도에서 지방비 보조를 각각 요청했다.

목포부가 1920년대에 구상했던 시구개정의 내용은 지금까지 그 실체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경성, 부산 등지에서 이뤄졌던 시구개정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료가 충분히 상당한 연구가

개항후 인구 급증 난개발 문제 대두

조선총독부 시구개정사업 지원 외면

공사비 부담 원칙에 자원마련 어려워

개발 주도권 마저 없어 외곽으로 밀려

이뤄진 것에 비해 목포의 시구개정은 그 존재 자체도 거의 인식되지 못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고 있는 문서철 중 1928년 6월4일 목포부가 총독부에 제출한 ‘국고보조에 관한 서류’에는 당시 목포부가 구상하는 시구개정의 내용이 기술돼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문서철에는 목포의 시구개정 및 하수도 공사에 대한 문건이 있고, 문서 색인에 ‘채택’과 ‘불채택’을 표기했는데, 목포가 제출한 서류는 전부 ‘불채택’이었다. 조선총독부에서 목포부의 요청을 묵살했다는 의미다.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1927년 7월 총독부에 제출된 지방토목사업 중 국비보조 신청이 70여건이 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마도 목포는 인천, 대구, 청진, 회령 등과 함께 경성, 부산, 함흥 등과 비교해 우선순위에 밀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1928년 목포부의 구상’은 수년 뒤 또는 해방 이후에 이르기까지 목포의 도시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획설명서는 1920년대 후반 목포 시가지의 실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목포 시가의 시구개정이 필요한 중동, 북교동, 남교동 일대는 거의 조선인 거주지역에 속하며 현재 인구 70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그 지역 내에 도로는 그 폭이 1m 내지 2m인 골목길 수준으로 차의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기관의 출동이 어려운 상태여서 거주자의 생명재산을 위협함은 물론 불만이 실로 심하다. 동시에 보안 및 위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구개정의 필요가 통감되고 있으며, 수년간 점점 가옥이 조밀해지고 통행이 빈발해 방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에 본 계획을 수립한다.”

목포부는 총공사비 21만원으로, 1929년부터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공사비 중 국고보조금 7만원, 지방비보조금 3만5000원을 총독부에 요청했고, 부채(府債) 6만8400원, 특별세 3만6600원으로 나머지를 충당하고자 했다.

지방의회 성격인 당시 부형의회에서는 공사 시행에 있어 목포부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원의 질문에 목포부원이 별도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따른 호구세의 증가분이나 다른 방법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시구개정은 도로건설에만 초점이 맞춰졌는데, 폭 10m 도로 연장 1391m, 15m 도로 연장 530m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목포의 경우 단순히 좁은 도로 주변의 토지 및 가옥을 사들여 도로의 폭을 10~15m로 넓힌다는 것이 계획의 골자였던 셈이다.

특이한 점은 시구개정의 대상지역이 한국인 거주지역이라는 점이다. 왜 한국인 거주지역만을 대상으로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당시 수도 경성의 사례를 볼 때 시구개정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지역은 지가가 오르지만 공사비용의 상당부분을 수익자가 부담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자연스레 그 지역에서 밀려났다. 일본인들은 그렇게 늘어난 도로 부지 및 주변 지역을 매점하고, 한국인들은 더 멀리 이주해 가야했던 것이다. 결국 목포에 진출하는 일본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에 따라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한국인 거주지가 잠식당했다.

목포부는 시구개정사업과 함께 하수도 공사 역시 계획했다. 시구개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같은 날 목포부원이 조선총독에게 하수도공사비 보조신청 역시 보냈다. 목포부 내 일본인들 거주자가 갈수록 늘고, 일부 지역에서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이 발병하고 있으며, 만조 때 비가 오면 하수가 역류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다.

총공사비 30만원에 1929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간선 하수거를 연장 3730m로 시공하고, 측구 3755m를 축조할 방침이었다. 당시에 이미 목포부에 하수도가 있었는데, 유달산에서 오폐수, 신호대를 연결하고 목포~무안 도로에 도달하는 목포부를 남북으로 양분하는 선이었다. 북부의 집수면적은 107ha에 하수거 5조, 연장 3300m, 남부의 집수면적은 64.7ha에 연장 1700m, 하수거 3조 등의 구조였다.

이러한 목포부의 시구개정에 대한 구상은 8년 동안 실행되지 못하다가 1937년 조선총독부가 목포시가지계획을 수립·결정하면서 여기에 포함되게 된다. 물론 이는 일본인을 위한 도시계획이었고, 놀랍게도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그대로 존속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죽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풍일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유·스퀘어 사우나 24시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